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확 달라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시설영업부

한국도로공사가 생긴이래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작업의 야전사령관인 시설영업부 -
양화승 부장을 만나 그동안의 개선사업을 들어본다.

한국도로공사 시설영업부
양 화 승 부장

97년 6월 제10대 정승렬 사장이 취임한 이후 「섬기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혁신 3대 과제를 선정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을 정성껏 섬기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은 근본적으로 중심건물과 일체화되어 지어졌기 때문에 외관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부를 중심으로 꽤 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점을 두며 편의시설을 집중 보완하여 공중화장실의 수준을 한단계 더 향상 시켰습니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회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더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 휴게소 운영혁신 3대 과제
■ 종업원의 친절 서비스 향상
■ 편의점 상품가격 평균 20% 인하
■ 화장실 시설 및 분위기 개선

특정된 몇 개의 휴게소만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전국 96개 휴게소에 총 74억원을 들여 안내간판 표기통일, 음악과 향기가 흐르는 분위기 조성, 화장지, 드라이어, 화장품등 필수소모품 상시 비치, 장애 편의 시설 확대 설치등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된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여 상시 관리전담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더욱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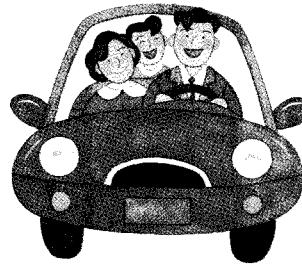
고속도로 화장실을 이용해보신 고객들 대부분이 화장실이 정말 확 달라 졌다고 많은 격려전화나 편지를 보내오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도 화장실에 낙서를 하거나 사진 및 초화류 등을 뜯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내집같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은 화장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민 의식수준을 하루아침에 높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모두 노력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사단법인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중 화장실 개선사업이 지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장실의 개선사업에는 대표자의 과감한 결단과 여러 사람의 노력에 투자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한국도로공사 를 나서게 되었다.



◀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 작업에서 가장 신경쓴 부분이 쾌적하고 안락한 화장실 내부 환경이다

• 쿠 키 퀄 라 W 600 → W 500	• 쿠 키 퀄 라 W 500 → W 500
• 포크리스 웨트 W 700 → W 550	• 포크리스 웨트 W 550 → W 550
• 페 일 우 유 W 400 → W 350	• 페 일 우 유 W 350 → W 350
• 데 마 소 다 W 700 → W 550	• 데 마 소 다 W 550 → W 550
• 미에로 퀄 어바 W 600 → W 500	• 미에로 퀄 어바 W 500 → W 500
• 편 디 샌 W 2,500 → W 2,000	• 편 디 샌 W 2,000 → W 2,000

상기상품 외 66가지 품목을 평균 20%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의 상품가격을 대폭 인하 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